

오전(1부, 노량진) 6시  
 주일예배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 Jesus Centered News

1부(오전) 7시  
 주일예배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6년 4월 12일 (제 1353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 생로락사(生老樂死)

사람들은 인생의 수순을 흔히 '생로병사(生老病死)'라고 한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길이 인간의 자연스런 수순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한계 속에서 바라본 인생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공식과 조금 다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삶은 '생로락사(生老樂死)'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된 생명이다. 그리고 세월이 가면서 모든 사람들처럼 곁사람은 후회하나, 속사람은 거듭나고 믿음 안에서 성숙해진다.

세상 사람들은 '늙는다=병든다'로 여겨 유병장수(有病長壽)를 꿈꾸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한다. 아브라함은 늙었지만 믿음은 더 견고해졌고, 모세는 120세가 되었어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다(신34:7).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삼1:2). 영혼이 잘 되면 삶도 형통하고, 몸도 강건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무병장수(無病長壽)는 물론 미락(美樂)까지 겸하여 살고, '병사(病死)'가 아니라 '락사(樂死)'로 이어진다. 우리의 죽음은 육체를 벗을 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니 더욱 '락사(樂死)'가 아니겠는가. 나그네의 삶을 벗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니 이 얼마나 즐겁고 복된 삶인가.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요14:2). 이 약속을 붙든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돌아감이다. 결국 우리 인생은 이렇게 정리된다. 태어남은 은혜요, 늙음은 성숙이며, 삶은 기쁨이고, 죽음은 영광이다.

이 땅에서는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며 살고,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 품에 안기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인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로병사'라 말하지 말고 '생로락사'를 선포하며 살자.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이니까. 할렐루야!

##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장사꾼은 돈을 좇고, 사업가는 사람을 얻는다."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이번 미국 캔자스시티(Kansas City) 집회 기간에 보여주신 일련의 모습은 이 말씀을 실제 이루어 가는 과정이었다. 애초부터 어떤 경우에도 사례를 받지 않으시고 그 먼 거리를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시는 것 자체가 돈을 좇는 장사꾼과는 거리가 멀거니와, 궁극적인 목적,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근본 목적에 집중하며 사람을 얻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일전에 이야기했듯이 사정이야 어찌 되었든, 주최 측에서는 자신들이 초청한 강사 모두를 한 파트에 모두 세우려 했던

양을 부르며 단에서 내려가 찬양하는 목회자들의 머리에 손을 얹자마자 장내는 순식간에 성령의 역사로 난리가 났다. 옆드려 통곡하는 사람, 온몸을 떨며 요동하다 뒤로 넘어가는 사람, 눈물로 찬양하는 사람 등, 성령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장면이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확실한 기선 제압으로 전쟁은 이미 끝났고, 이후 두 번의 저녁 세미나와 주일 집회를 통해 목사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라는 말씀처럼, 그들로 확실한 경험을 갖게 만들어주셨다.

특히 카리브 제도에 속한 도미니카공화국(Republic of Dominica)에서 온 하비에르(Javier) 목사는 목사님 메시지에 충을 추며 기뻐하다가 단에 올라와서는 머

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음성이 들리더라. 야구가 좋았던 그는 피하고 싶었지만 강권적인 역사로 목사가 되었고, 이후 전 세계의 성공한 목회자들을 연구하는 중에 2004년 목사님의 미국 시카고(Chicago) 목회자 세미나 영상을 보고 큰 감동과 충격을 받고, 목사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목회에 접목하여 목회 15년 만에 매우 성공적인 목회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목사님은 그에게 세미나에서 가르쳤던 내용을 넘어 목회 성공을 위한 많은 조언들을 조목조목 말씀해주셨고, 이에 해리건 목사는 온두라스(Honduras) 집회를 준비하겠다고 목사님의 가르침과 조언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남미 사람들



2026 미국 캔자스시티 목회자 세미나

것이 사실이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지만, 목사님은 접근 자세를 겸손한 자세로 임하되 짚고 넘어갈 것은 확실히 하는 방법으로, 무엇보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말씀하셨고, 이에 해리건(Harrigan) 목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링에 올라 확실한 실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을 나타냄은 물론 목회자들이 실제 목회 현장에서 헤쳐가야 할 지혜를 성경에 입각하여 말씀해주시니 애초에 그들이 설계했던 판은 확실히 뒤집어졌다고 할 수 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고, 불이 붙었으니 더 무엇을 원하겠는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Mi corazón)' 찬

리에 손을 얹자마자 통나무처럼 쓰러지는 바람에 모두가 놀랐지만, 큰 은혜를 받고 목사님을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초청하여 집회와 세미나를 열겠다고 말했다.

세미나와 집회를 마치고 해리건 목사는 캔자스시티를 떠나기 전날 저녁에 목사님과 우리 일행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였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간증을 하였고, 목사님은 깊은 조언들로 격려하셨다. 그는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으로 현재 49세이고, 젊은 시절 야구선수 2번 타자로 활약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야구 경기 중 자기가 들고 있던 야구 배트가 마이크로 변하고 성경책이 날아오는데 음성이 들리길 이 많은 관중

의 인구가 7천만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중남미에 집중되었던 우리 선교의 무대가 북아메리카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도 여러분이 기도가 근본 바탕을 이루며 우리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어가는 것이지만, 앞에도 말했듯이 사람을 얻어가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지 생각하게 된다.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지혜는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에 이르는 지혜가 아닐 수 없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이번 캔자스시티 집회를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께 이 지면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은택 목사**



주최자인 해리건 목사를 위해 기도해주셨다



세미나를 주최한 해리건 목사



모두가 기쁨으로 울동하며 찬양하였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전15:1~20)



# 성경에는 삶의 문제와 답이 다 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민23:19). 저는 41년간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라고 전했습니다. 사람은 조석으로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사 구원하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진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7:14).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찌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 나라”(미5:2).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마1:22~23).

### 이보다 확실한 약속은 없다 기도하라, 응답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만으로는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대속의 원리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도 지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동물의 피로 그때그때 죄 사하는 것을 폐하시고,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피로 단번에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려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히9:12~14).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사건으로 예표하셨고(마12:40), 약속대로 예수님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전15:20).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

의 시작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약속의 과정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약속의 완성인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더라도 부활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약속은 완성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다면 다 망한 자요,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 되었을 겁니다(고전15:14~19).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힘든 약속을 우리에게 스스로 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셨을



총회장 이초석 목사

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3:16).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런 겁니다. ‘이처럼’이 뭘니까?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14:16~18).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120 문도에게 임했고, 그 성령은 오늘날 회개한 심령에 부어주십니다. 성령은 천상천하에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

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요14:13~14).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들 아깝겠습니까(롬8:32)? 당연히 구하는 것을 다 주시지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구했는데 안 주시던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약속하라.’ 하십니다.

어떤 약속

이냐? 바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창22:18).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을 원합니까? 명성을 원합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신28:1~2).

만사가 행통하길 원합니까?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위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그 행사가 다 행통하리로다”(시1:2~3). 순종하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듭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우리가 약속을 지

키면, 순종하면, ‘그리하면 다 이루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복이 참된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 영혼이 파멸에 이른 자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먼저는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되면 자동으로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이 이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자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니까?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까? 이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사53:5). 그럼에도 아직도 현실에서 해결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 약속은 곧 생명이다 신뢰를 잃은 자 기대할 것이 없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삶의 문제에 따른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병든 것이 나음을 입고, 엷히고설킨 것들이 풀리고, 안 되던 것들이 되는 것, 즉 우리 삶의 부활은 오직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준행하면 하나님도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고, 미루지 않고 다 이루십니다.

순종하니 아브라함이 아들을 돌려받았고, 순종하니 이삭이 흉년 가운데서도 씨를 뿌려 백 배의 축복을 받았고, 순종하니 노아가 방주를 지어 온 가족을 구원했고, 순종하니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고, 순종하니 베드로가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습니다. 공통점은 딱 하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 신실하심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있을 예수님의 재림도 믿고,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음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부활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곧 순종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다 이뤄주사 우리 삶이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영생에 이르는 길 ::

# 돼지는 하늘을 올라다볼 수 없다!

돼지는 하늘을 올라다볼 수 없다. 목이 경추와 연결되어 고개를 드는 움직임이 극도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땅을 파는 굴토성(掘土性) 습관이다, 땅에 떨어진 먹이만 주워 먹고 살다 보니 체형이 그러한 모습으로 더욱 발달하게 되었다.

야성이 남아있는 멧돼지는 그나마 낫다. 야생에서 생존하고 버텨야 하기에 목을 쓰는 일이 많아서다. 그런데 사료에 길들여진 집돼지는 주는 먹이에 집착하다가 그만 목이 굳어 땅만 바라보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을 때가 있다. 바로 넘어졌을 때다. 넘어져야 비로소 하늘을 본다. 하지만 일어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땅만 보고 살아간다.

사람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안트로포스(ανθρωπος)'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의미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런 우리가 돼지처럼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는가! 병들고 문제가 있어 막히고 넘어져 어려울 때, 쓰러져 고통스러울 때는 그나마 하나님을 바라보는 듯하다가, 일어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하늘을 외면하고 살아가서야 되겠는가 이 말이다!

현대사회를 '3무(三無) 시대'라고들 한다.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시대라는 의미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

하니 무감각한 세대요, 내 문제가 아니면 외면해 버리니 무관심한 세대다.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지는 자 없으니 이 또한 무책임한 세대라 하겠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영적인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음에도 무감각하여 이를 깨닫지 못함ियो, 주위에 영혼이 죽어가며 고통의 신음을 흘리는 데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니 무관심한 거다. 맡겨진 영혼, 맡겨진 자리에서 열매가 없으니 이는 무책임함이라 할까!

마태복음 11장 16~17절에서도 주님은 무감각하고, 무관심하며, 무책임한 세대들에 대해 이렇게 경고하신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바울은 우리가 땅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빌3:20).

존귀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영적 돼지처럼 땅만 보고 살아가지는 말고, 위엿것을 바라보고 살자!

신현명 목사

:: 성경에세이 ::

# 봄이 왔네

여보게!

봄을 이길 엄동설한은 없다더니 어느새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메마른 들판에도 생명의 기운이 돌기 시작했네. 버드나무의 가는 줄기에 물이 올라 푸르고 벚꽃이 만개했네. 정말 봄이 온 게야.

그러나 봄이 왔다고 저절로 열매가 맺히던가? 아니지. 묵은 지경을 갈아엎고 씨앗을 뿌려야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지. 그래서 봄이 되면 밭은 농부를 기다리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기다린다네.

성경은 말씀하셨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렘4:3).

묵은 땅은 굳어 있고, 여기저기 잡초가 자라 있지. 내가 농사꾼의 자식 아난가. 잘 알지. 봄이 되어 논밭에 나가면 땅이 얼마나 딱딱한지, 거기에 억센 잡초가 무성한 것을. 그래서 농부의 수고가 요구되는 거라네. 그러나 농부가 힘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은 가을 추수의 기쁨을 알기 때문이라네.

밭이 농부를 기다리듯, 세상도 교회의 일꾼을 기다리지. 겨우내 우리는 너무 움츠리고 있었네. 춥다고 너무 오랫동안 안에만 머물러 있었지. 그러나 따뜻한 성전 안에서 봄을 맞아셔야 되겠나. 진짜 봄은 들판에 있는데.

우리, 묵은 지경을 갈러 세상으로 나가세. 손에 씨, 곧 말씀을 들고 나가세. 잠든 영혼을 깨우러 나가세. 무관심에 잠든 자들, 상처 속에 웅크린 자들, 절망 속에 누워있는 자들을 향해 걸어가세.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그러나 새싹처럼 단단하게 무장하고 말일세.

오늘 갈아엎은 한 사람의 심령에서 내일 수많은 열매가 맺힐 것을 믿으며, 나가서 묵은 지경을 갈아엎고 씨를 뿌려보세나.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그 밭 위에 단비를 내리시고, 따뜻한 햇볕을 비추사 열매를 맺게 하실 거야. 따스한 봄에 양지에서 꾸벅꾸벅 졸며 게으름을 피우는 자의 밭에서는 잡초만 무성할 뿐, 그런 자에게 무슨 열매가 있겠는가.

나쁜하다고 게으름 피지 말고 우리 나가보세나. 나가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보세!

봉우

여보게!

"지금껏 끝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호10:12).

# 벚꽃보다 아름다운 삶

매년 4월이 되면 사람들을 설레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벚꽃인데요, 분홍빛을 가득 담은 벚꽃이 군집을 이루며 활짝 필 때, 그 아름다움은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만큼 장관입니다.

하지만 봄을 대표하는 가장 화려한 이 벚꽃의 향연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활짝 피는 시기는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을 만큼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벚꽃이 항상 피어서 계절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볼 수 있다면 사람들은 아마 지금처럼 열광하지 않을 것입니다. 식상할 겁니다. 벚꽃은 자기의 때에 필 때 가장 빛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전도서의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꽃이 필 때가 있으면 꽃이 질 때가 있고, 잎이 푸를 때가 있으면 낙엽이 되어 떨어질 때가 있고, 왕성할 때가 있으면 쇠

퇴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영원무궁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생은 지극히 짧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짧고 보잘것없는 삶이 영원히 사는 세계를 결정짓기에, 사실은 너무나 소중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오직 현세를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의 세상,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죽은 다음의 세상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벚꽃처럼 짧은 일생이라도 벚꽃보다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이기에 그날에 받을 상급과 면류관을 기대하며 예수를 위해 오늘도 뛰어봅시다. **최성경 전도사**



:: 생명의 말씀 ::

# 사랑으로 지는 짐은 가볍다

사람은 누구나 짐을 지고 살아간다.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삶의 무게가 우리 어깨 위에 놓여 있다. 때로는 그 무게가 너무 크게 느껴져 지치기도 한다.

신앙의 길 역시 예외는 아니다. 용서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며, 때로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신앙은 또 하나의 짐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은 언뜻 역설처럼 들린다. 짐은 본래 무거운 것이었는데, 어떻게 가벼울 수 있을까? 그 답은 사랑에 있다. 사랑은 짐의 무게를 없애지는 않지만, 그 짐의 의미를 바꾼다. 억지로 지는 짐은 무겁지만, 사랑으로 지는 짐은 기쁨이 된다.

한 소년이 어린 동생을 업고 길을 걷자 사람이 물었다. "무겁지 않나?" 소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짐이 아니라 제 동생이에요." 같은 무게였지만, 소년에게 그것은 부담이 아니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은 무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무

게를 기쁨으로 바꾼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의무로 감당하면 무겁고, 억지로 순종하면 지치게 된다. 그러나 사랑으로 순종하면 그 길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 사랑이 있는 순종은 자유를 낳고, 사랑이 있는 헌신은 기쁨을 낳는다.

많은 사람이 신앙을 무겁게 느끼는 이유는 요구가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이 식어 있기 때문이다. 사랑이 식으면 작은 일도 부담이 되지만, 사랑이 살아 있으면 큰 헌신도 감사로 감당할 수 있다. 짐의 무게를 결정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사랑의 깊이다. 라헬을 사랑한 야곱이 7년을 '며칠 같이' 느낀 것처럼(창29:20).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신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분과 함께 걸도록 부르신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억지로 견지 않는다. 사랑하기 때문에 견고,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한다. 그때 짐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통로가 된다. 사랑으로 지는 짐은 가볍다. 사랑 안에서 함께 나누는 무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쉼과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 **임택함 목사**

:: 선교지에서 만난 사람들 ::

:: 귀를 기울이세요 ::

# 목사님이 제 할아버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집회에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  
(왼쪽부터 아벨, 헤르솜, 알렌)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준비하신다. 어느 집회를 가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

오후 2시경 우리가 캔자스시티(Kansas City) 공항에 도착했을 때, 사소할 수 있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짐을 찾으러 컨베이어 앞에 서 있는데, 짐이 모두 나왔다는 사인이 전광판에 뜬 후에도 목사님의 가방만 나오지 않고 있었다. 항공사 사무실로 찾아가 문의했더니 짐이 누락되었고, 추후 다른 비행편으로 올 예정이니 짐표와 연락처를 달라고 했다. 현지인의 연락처가 필요하여 공항에 유일하게 영접하러 나온 헤르솜(Gersom) 전도사를 불렀다. 전형적인 마야족의 선한 인상이었다. 원래 짐이 도착하지 않았을 때의 절차는 짐표와 연락처, 그리고 짐을 받을 수 있는 주소의 주소를 주면, 항공사에서 배달을 해준다. 그런데 헤르솜은 자신이 공항에서 짐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직접 전달해 드리겠다는 것이 아닌가. '멀리 한국에서 세미나의 강사로 오신 주의 종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세를 갖고 있구나' 하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날 저녁 7시가 되어 공항에서 가방을 찾아 호텔로 돌아온 그를 볼 수 있었다.

그는 목사님을 집회 기간 내내 수행했고,

일정을 마친 후에도 목사님이 가시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 모실 것이고, 일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선하기도 하지만 참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란 인상을 받았다.

그와 함께 목사님과 통역관의 사랑을 운전해 준 알렌(Allan)과 우리 일행을 대형 차량으로 운전해 준 아벨(Abel), 이렇게 세 청년은 항상 웃는 낮으로 섬겨주었다. 알렌은 출근해야 하는 날에도 일을 접고 목사님을 섬겼다. 정말 고마운 청년들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란 감동을 느낀다.

목사님은 첫날 그들을 모두 데리고 캔자스시티에 유명한 바베큐 음식점으로 데려갔다. 사실 강사가 왔으면 대접해주는 것이 상례인데, 오히려 목사님은 그들에게 밥을 사주며 가르치셨다.

"호텔 밥을 먹을 게 아니라 이 도시에서 가장 전통적으로 유명한 식당으로 가자. 짐승도 입으로 먹는다. 사람이면 눈과 귀로도 먹어야 한다. 음식에도 예절과 품격이 있는 것이다. 왜 고착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 인생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헤르솜은 매사 찬찬히 가르쳐주시는 목사님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로 자존감도, 자신감도 많이 부족하다고 한다. '누가 자기를 사랑해 주겠는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는 것이다. 그는 비판이 심해 움직일 때마다 호흡도 거친 것이 걱정될 정도였다. 목사님은 그의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기 위해 만날 때마다 그에게 관심을 표명하시며, 조연을 아끼지 않으

셨다.

"난 네가 너무 좋다. 너는 보기에선 선한 아름다움이 풍겨 나온다. 삶은 얼마든지 노력하면 뿔 수 있다. 포기하지 말아라. 너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은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불량품을 만들지 않으셨다. 너는 세계 유일무이한 존재다. 너와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너 자신의 유일한 독특성과 개성을 살리면 얼마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진심은 통하는 법이고, 사람의 마음은 물에 비치는 것처럼 서로 보이기 마련이다. 만날 때마다 격려하며 안아주는 목사님이 좋았는지, 목사님이 자기 할아버지였으면 좋겠다고. 자기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많이 아쉽다고 했다.

마지막 날 아침 공항으로 떠나며 호텔 앞에서 인사하는 중에도 목사님은 그들을 데리고 호텔 앞에 피어있는 튤립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이 꽃들을 보라. 다 같은 튤립이지만 색깔이 다 다르지 않은가. 인종을 초월하여 다 같은 사람이지만, 각자의 생김새나 개성, 달란트는 다르다. 너희 것을 찾으면 된다. 이제부터 생각을 바꾸고 멋진 삶을 살아라. 다시 만날 때는 꼭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공항까지 배웅하며 작별을 아쉬워하는 그들을 목사님은 일일이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다. 어쩌면 캔자스시티는 헤르솜으로 기억될 지 모르겠다. 사람이 사람을 기억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까지 사랑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한은택 목사

## 날 소생시키는 전도

벚꽃 잎 흩날리는 따뜻한 봄날의 오후, 필자가 소속한 부서에서는 부활의 기쁨을 전하러 거리로 나갔다. 부활의 핵심 메시지는 '전도'라는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 따라, 며칠 전부터 달걀 전 개를 삶고, 선물을 포장하고, 전도를 준비하였다. 흥대라는 지역의 특성상 젊은이들, 외국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영어 문구로 된 판넬도 준비하며, 'JESUS is Risen(예수님이 부활하였습니다)'라는 메시지에 집중하였다.

역시나 날이 좋아서인지 거리에는 수많은 인파가 쏟아져 나왔고, 청년들은 미리 준비한 부활절 문구와 예수님이 그려진 노란 풍선을 밀집한 시민들에게 전달하며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다. 멀리 부산에서, 지방에서 온 한국 사람들, 타이완, 캐나다, 말레이시아, 일본, 미국, 덴마크 등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이 '해피 이스터(Happy Easter)'라는 말에 밝게 웃으며 인사해주었고,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었다. 각자 국적은 다르지만, 예수님 부활의 그 큰 기쁨은 모두에게 충만하였다.

이날 특히 기쁜 일은 관광객 가운데 우리 교회에 나오고 싶다고 말한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는 사실이다. 비록 지금은 관광객 신분이지만, 한국에 머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친절하게 회화를 안내하며 연락처를 받고 안내하였다.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러 나간 것이지만 이 전도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더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전도라는 것이 그동안 전도를 많이 해보지 못한 몇몇 청년들에게는 어려운 숙제일 수도 있었는데, 새로운 기획들로 전도를 축제처럼 만들었더니 전도가 어려웠던 청년들에게는 전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처럼 '내가 만난 예수', '나를 살리신 예수'를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이자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 오늘도 세상에 나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보자.

송현혜

## 가장 지혜로운 자는 매사 철저히 준비하는 자다 -봉우

:: 내가 매일 기쁘게 ::

### 믿음 위에 규율, 그리고 강력한 흔적

나의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믿음 위에 규율, 그리고 강력한 흔적'이라는 문장이 적혀있다. 나약하고 부족한 나를 스스로 일깨워 보고자, 많은 고민과 사유 끝에 만든 좌우명이다.

동기부여는 우리를 결단하게 하고 무언가를 시작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 끝에 결과를 맺게 하는 것은 목적을 향한 규율과 반복이다. 규율과 반복이 삶에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들이 인생을 작품으로 만든다. 그래서 나는 믿음 위에 규율을 세우고 지켜, 짙은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보고자 이러한 좌우명을 만들었다.

열매를 맺는 삶엔 자신이 세운 규율을 반복하고, 절제하는 고된 과정이 필요하다.

성과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두꺼운 교과서 책장을 매일 고독하게 넘기는 일이나, 묵묵히 육체의 한계를 이겨내는 고단한 훈련의 반복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저 화려한 동기부여만을 좇곤 한다.

하지만 총회장 목사님도 수없이 말씀하듯, 달인을 만드는 것은 지루할 정도의 묵묵한 반복과 훈련이다. 진짜는 바로 그 투박한 규율과 반복 속에 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기기를 닦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 사람들도 썩어서 사라질 영광을 얻기 위해 뼈를 깎는 반복과 절제를 감내한다. 하물며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바라는 우리 삶에 대해 생각해본다.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으며, 인내와 절제로 묵묵히 견뎌내는 것.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스스로 세운 원칙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이 아닐까?

믿음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서, 이 지루하고 치열한 절제의 시간들을 차곡차곡 쌓아, 나의 삶이 지워지지 않는 '강력한 흔적'이 되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작품으로 남게 되길 소망한다.

전호정 집사

## 춘계산상집회

4월 27일(월)~30일(목)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